

‘국내 가구 원탑’ 한샘, 51년 만에 새주인... IMM PE에 매각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

조창걸 명예회장 지분 30.21% 매각 경영권 포함 거래액 최대 1.7조 예상 매각이후 직원고용 100% 승계할 듯

국내 1위 가구기업 한샘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된다. 1970년 국내 1세대 가구 업체로 시작한 한샘의 주인이 51년 만에 바뀌게 된다.

한샘은 14일 창업주이자 최대주인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전량(30.21%)을 IMM PE에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거래 규모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5000억~1조7000억 원에



한샘의 서울 상암동 사옥 전경.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금액 등 구체적인 매매 조건은 실사 이후 본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다”고 전

했다.

IMM PE는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한샘에 대한 실사에 돌입하며 이를 위한 독점적 협상권을 부여받았다. 실사가 끝나면 하반기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샘은 “조 명예회장이 회사의 비전과 미래 가치를 인정하는 전략적 비전을 갖춘 투자자를 찾아왔다”며 “IMM PE를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 판단해 지분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샘의 대주주는 IMM PE로 바뀌게 된다. 이후에도 한샘은 기존 사업과 장기 경영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의 고용도 100% 승계하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한샘 측의 설명이다.

공익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 명예회장은 2015년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태재재단’(옛 한샘드류연구재단)에 개인 보유 한샘 지분의 절반인 260만여 주를 출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66만 주를 출연했고,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나머지를 기부하면 출연이 완료된다.

한샘 관계자는 “리하우스 사업 중심의 오프라인 강점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중심 성공모델 창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스마트홈 중심의 미래 디지털시대 선도 기업 등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한샘이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조 명예회장이 이창에 아예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올해 82세인 조 명예회장은 가족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경영권을 승계할 뜻이 없음을 평소 밝히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의 세 자녀는 한샘 지분을 각각 1.3%, 0.9%, 0.7%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70년 당시 서울 불광동에서 한샘을 창업한 이후 94년까지 경영을 총괄하다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한샘은 최양하 전 대표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강승수 현 대표가 바통을 이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세계백에 ‘LX Z:IN 인테리어’ 입점

대구점에 연면적 1289㎡ 전시장

LX하우시스가 백화점에 ‘LX Z:IN(LX지인) 인테리어’ 대형 전시장 입점을 시작하며 소비자들 추가 공략에 나섰다.

LX하우시스는 지난 13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 대형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인 ‘LX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LX하우시스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인테리어 제품과 가전, 가구까지 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주요 가전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에 전시장을 입점해 왔다.

이번 지인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주요 상권의 백화점으로 전시장 입점을 본격 확대해 백화점에서도 LX지인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김승호 기자



지난 13일 진행된 기공식에서 (왼쪽부터)한진 조현민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 한진 류경표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한진 노삼석 사업총괄 대표이사,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 ‘첫 삽’

2023년 완공... 日 275만 박스 처리

한진이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떴다.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이 2023년에 완공되면 하루 120만 택배박스를 처리했던 한진택배 처리 물량은 하루 총 275만 박스까지 늘어난다. 한진은 2023년까지 택배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SMART Mega-Hub) 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대전종합물류단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택배·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해 지난해 6월 대전시와 투자 및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년까지 총 2850억을 투자해 대전종합물류단지 내 5만9541㎡ 부지에 축구장 20개 규모에 해당하는 연면적 14만9110㎡의 초대형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ITS 도입 후 61억 박스 처리

(지능형 스캐너)

첨단 자동화설비 도입 5년 성과 전국 터미널에 ITS 총 300여대 설치 움직이는 상자 육안구별 안해 ‘혁신’

CJ대한통운이 지능형 스캐너 ITS 등 첨단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지난 5년간 61억 박스가 넘는 택배 상품을 처리하며 택배 첨단화를 선도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11월 당시 업계 최초로 첨단 지능형 스캐너 ‘ITS(Intelligent Scanner)’를 도입해 올해 6월말까지 61억개가 넘는 택배 물량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는 총 300여대의 ITS 장비가 설치돼 있다.

ITS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택배 박스를 자동으로 스캔해 운송장 바코드에 담긴 택배 상품 정보를 추출해 저장하는 최첨단 장비다. 지난 2016년 11월 업계 최초로 자동분류기 ‘휠소터(Wheel Sorter)’와 함께 택배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ITS는 택배 박스 위에 있는 운송장 바코드를 인식하고, 휠소터는 배송지역별로 택배 박스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CJ대한통운의 첨단 지능형 스캐너 ITS가 택배 상품을 스캔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빠르게 움직이는 상자를 육안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택배 현장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ITS 시스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택배 상품의 가로, 세로, 높이 3면의 체적을 측정하고 그래픽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택배 상품의 총 체적량과 물량 기반의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체적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간선차(대형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의 총 부피와 필요한 차량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졌다. 또한 예상된 물량과

부피에 따라 택배 박스를 대분류하는 허브터미널, 배송지역에 있는 서브터미널의 운영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올해 말까지 ITS 장비 추가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측정용 카메라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구분이 어려웠던 행랑 모양과 같은 비정형 택배 상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정확한 체적 측정과 이미지 저장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ITS, 휠소터 등 CJ대한통운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은 동종업계에 비해 3~5년 가량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CJ대한통운은 TES물류기술 연구소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택배 현장 첨단화에 앞장서고, 경쟁사와의 기술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ITS, 휠소터와 같은 첨단 자동화 장비 덕분에 현재까지 61억개가 넘는 택배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택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성장 돕는다

중기부·창진원과 맞손

네이버클라우드가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스타트업이 성장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에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자사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국내 대기업이 협업해 창업 3~7년 이내 도약기에 있는 스타트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

(친환경 분야), CJ그룹(라이프스타일 분야)도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각사가 지닌 인프라와 노하우, 투자연계 등을 지원해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친환경 분야(20개사) ▲디지털 분야(20개사) ▲라이프스타일 분야(10개사) 3가지로 구성되며, 총 50개사 스타트업이 각 한 가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민의힘, 文 ‘뉴딜’에 “재탕·삼탕 사업 짜깁기...양심 없다”
▲ 이재명 “김부선, 두 번 사과” VS 김부선 “가짜 사과 이제 알잖아” /사진 뉴시스

▲ 유승민, 부동산 정책 발표... “내 집 보유자 죄인 취급 않겠다”
▲ 日우익 매체 “文, 반일 고치지 않으면 정상회담 의미 없어”



▲ 황교안,尹崔 향해 “대선, 제1야당 중심으로 뭉쳐야” /사진 뉴시스
▲ 20대 박성민 청년비서관, 첫 작품은... “보호종료아동 지원”